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문화유산” 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이끌어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



인터뷰_ 사람&issue

전남/(주)디딤 건축사사무소 장진영 건축사



인터뷰_ 螢窓雪案

전북/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은민균 교수

시론 02

“사람은 디자인을 발전시키고, 디자인은 생활을 발전시킨다” _ 김은영

작품소개 03

2013 제8회 한국농촌 건축대전 “변화變化와 대응對應”

특별기획 04-05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이끌어...

新건축 06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 건축 3부_ 문창호

사람 & issue 07

전남 (주)디딤 건축사사무소 장진영 건축사와의 만남

특별기고 08

건축의 미래 2부 / 배제하는 건축_ 김광현

螢窓雪案 09

전북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은민균 교수와의 만남



2013 제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준공건축부문 대상
영주 풍기읍사무소_ 최재원 건축사/(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사람은 디자인을 발전시키고, 디자인은 생활을 발전시킨다”



김은영 전시부장
(재)광주비엔날레
eunyoung.kim@gwangjubienale.org

디자인의 최종 목적은 “그리하여, 나는 살다”라고 한다. 디자인 트렌드도 중요하고, 미래 가치를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진정한 디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3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디자인총감독:이영혜)가 시작됐다. 지난 4회까지 디자인비엔날레가 디자인의 정의나 정체성 등 디자인의 미학적 담론을 생산해내는데 치중했다면 올해는 디자인의 경제적 부가가치, 특히 산업화에 역점을 두었다. 디자인의 화두를 통해 상품으로 나오기까지의 프로토 타입도 제시하고, 곧 바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활성화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비엔날레가 되도록 지향점을 둔 것이다. 소유하고 싶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는 ‘거시기 머시기’. 디자인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서 거시기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만 사용자의 취향과 특성을 담아내면서 멋이 있어야 한다는 ‘멋이기’에서 머시기를 가져왔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의 담론의 글 ‘집단 기억의 잔치-카오스모스의 세상’을 집필한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명확한 울타리가 없는 것이 거시기 머시기로서, 이는 울타리의 경계를 부수는 반란의 언어가 시작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래서 이 전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더듬고 찾아내야하는 상상력과 추리력 그리고 막연하고 애매한 것들을 짐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소중히 ‘거시기’들을 ‘머시기’해낼 수 있을 때 디자인은 창조하고 협력하고 진보하며 배워가는 여정인 인생과 같은 ‘멋’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공공디자인, 착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성격과 정체성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에 광주만의 공공성있는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버스 정류장. 미적인 멋은 물론이고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면서 내것인 동시에 공공의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공공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버스 정류장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트 버스 쉼터’(황승준)로 거듭난다. 버스 쉼터를 단순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 아닌 기다림과 만남의 감성적 공간으로 연출된다.

가든 디자인은 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발을 디자인’하는 텃밭 디자인으로 앞으로 다가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좋은 먹을 거리에 대한 관심을 넘어 직접 좋은 먹을 거리를 가꾸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에 대한 디자인 제안이다. 텃밭 가꾸기는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취미, 건강 레포츠로 앞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문화를 위한 디자인이다. 팔레트와 폐천막을 소재로 만든 도심 텃밭을 통해 ‘밭도 예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최시영, 오경아)

빵은 어쩌면 ‘최초의 디자인’ 작품이었을 것이다. 최근 우리에게 친숙한 주식으로 자리 잡은 빵은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양으로, 다른 곡식을 넣어 만드는 디자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문. 가든 디자인과 함께 빵 굽는 화덕을 새로 제작하여 ‘베이커리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빵과 식문화를 디자인한다.(이영환)

착한 디자인은 미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해오면서 우리의 불편함은 줄어들었지만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한 것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누구나 디자인이 너가 되어 디자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셉이다.

“사람은 디자인을 발전시키고 디자인은 생활을 발전시킨다”는 신념으로 ‘자전거와 밥술의 진화’(안동민)라는 주제 아래 생활 속에서 가장 접하기 쉽고, 사람에게 원동력을 주며 변함없이 사랑받는 제품인 자전거와 밥술을 통해 디자인과 우리 삶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자전거를 가지고 광주 은혜학교 등 장애 학생들과 진행한 ‘Growing dreams’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그린 자전거 그림들이 새로운 아트워크 공간으로 재창조됨을 보여주어 의미가 깊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이 확산되어가는 요즘 상상력이 희망이자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디자인도 착한 디자인의 범주이다.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햇빛 영화관 프로젝트’는 중고 스마트폰 부품과 햇빛 영화관 본체와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누구나 자신만의 햇빛 영화관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문화에서 벗어나 고유성에 더 주목한다. 주변이 중심이 되는 지역성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서비스 디자인은 특히, 광주시민들이 디자이너들과 협동 작업을 하는가 하면 디자이너가 광주를 살펴보기도 하고 관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디자인을 선정할 수도 있는 전시다.

국내 유명 디자이너 5인이 ‘광주 택시 기사 유니폼 오디션’을 펼친다. 광주의 첫인상이라 할 택시기사들이 착용할 유니폼을 디자인하여 관람객들의 투표로 선정된 디자인을 광주시에 제안할 계획. 광주 5개구의 특성을 담은 디자인이 가미된 5개구 예쁜 쓰레기 봉투는 스트리트 퍼니처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머시 동구는 예술, 화훼단지가 있는 서구는 꽃, 자연 환경이 오롯이 보존된 남구는 풀, 동물원이 있는 북구는 동물, 기차역이 있는 광산구는 기차의 이미지가 봉투 겉면에 그려졌다. 광주의 가을은 ‘거시기’한 디자인으로 ‘머시기’한 재발견이 기대된다. ☞



**군산시건축사는국민의안전과
쾌적한건축환경조성,
근대역사문화도시와
세계로향한 새만금시대를여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군산지역건축사회 회장 김성수 외 회원 일동

강재익 / 라임 건축사사무소
고시곤 / 건축사사무소 플라넷
김명기 / 천지건축사사무소
김문호 / 이룩건축사사무소
김성수 / (주)미래종합 건축사사무소
김재욱 / 유진 건축사사무소
김현수 / 현 건축사사무소
노관식 / 건축사사무소 상 상
문남영 / 맥 건축사사무소
문종백 / (유)서해 건축사사무소
문준영 / 동인 건축사사무소
박기두 / 나한 건축사사무소
박덕수 / 대상 건축사사무소

박충서 / 하나 건축사사무소
방성식 / 건축사사무소 탐
서일석 / 건축사사무소 예담
송명욱 / 명 건축사사무소
송태천 / 진성 건축사사무소
송현규 / 송 건축사사무소
오성만 / 오 건축사사무소
오신철 / 가람설계 건축사사무소
이강수 / 이화 건축사사무소
이두필 / 두산 건축사사무소
이병곤 / 다운 건축사사무소
이 실 / 국도 건축사사무소
이영창 / 건축사사무소 국도

이정복 / 건축사사무소 필
임진섭 / 호남 건축사사무소
임채엽 / 태권비 건축사사무소
장병식 / 동인 건축사사무소
장종우 / 장인 건축사사무소
전승택 / 노아 건축사사무소
조영호 / 화인 건축사사무소
최순호 / (유)세움 건축사사무소
최 호 / 희우 건축사사무소
한성호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허 방 / 방 건축사사무소
허 철 / 호남 건축사사무소
황공신 / 흥익 건축사사무소

2013 제8회 한국농촌 건축대전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개최함

주 제 변화變化와 대응對應

-지역정체성을 살린 마을정주환경 리모델링-

전시회

1차 : 2013. 9. 9~13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2차 : 2013.10.11~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나인사아트센터 본전시장

주 최

농림축산식품부

주 관

한국농어촌공사 ·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후 원

국토교통부 · (사)대한건축학회 · 대한건축사협회 · (사)한국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 (사)여성건축가협회

■ 준공건축부문 수상작



人,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99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 공공청사
대지면적 : 6,311.00㎡
건축면적 : 1,038.19㎡

연면적 : 1,331.84㎡
건폐율 : 16.45%
용적률 : 21.10%
규 모 : 지상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본상

광주 상령동 도예작업장

설 계 | 김효영_ (주)케이시아키텍츠

강태웅_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장준수_ (주)젠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강민수



본상

보살핌을 나누는 이웃, 백화마을

설 계 | 이종혁_ 민들레 건축사사무소(주)

건축주 | 백화마을



본상

보성주택

설 계 | 김창균 · 최병용_ (주)유타 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문공임 · 박종주



본상

지렁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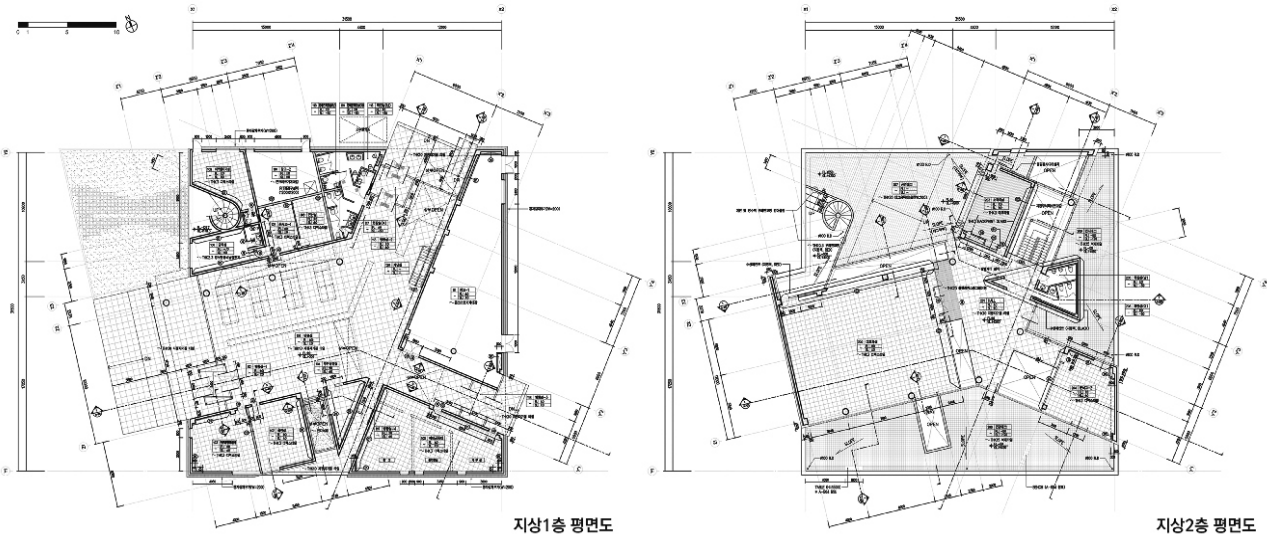
설 계 | 김원기_ 건축사사무소 노드

건축주 | 한금옥

최재원 건축사

(주)디자인그룹 오즈건축사사무소

준공건축부문 대상수상작 영주 풍기읍사무소



지상1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풍기읍사무소는 읍사무소다? 기존의 행정업무 중심의 권위적인 관청건물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서 건물 및 프로그램을 재배치하였다. 풍기읍사무소는 도시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의 중심이다. 새 읍사무소 터는 구도심에서 벗어나 풍기와 영주시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다. 도시의 경계에서 도시 외부로 풍기를 상징하며 새로운 도시의 중심이 된다. 풍기읍사무소는 구도심과 도시의 경계를 연결하는 도시의 광장이다. 관공서 건물의 전형적인 전면 광장 배치형태를 벗어나 도시의 경계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소통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건물이 위주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이고 할 수 있는 광장이 읍사무소의 중심이 된다. 풍기읍사무소는 도시의 주요 자원을 연결하는 길들의 교차로이다. 도시 거점과 연결되는 길들의 교차로를 만들실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로 계획하여 관청건물이 가지는 거부감을 없애고 자유롭게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였다. 풍기읍사무소는 공민, 전시, 전망의 테마를 가지는 도시의 플랫폼이다. '사'자 형태의 마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2층의 테크는 광장과 연결된 공민데크, 남원선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데크, 전시를 위한 벽면을 가지는 전시데크 등 테마를 가지는 테크공간을 계획하였고 테크로의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 읍사무소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풍기읍사무소는 풍기와 영주를 상징하는 도시의 아이콘이다. 교차로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2층 마스의 형태가 되고 풍기 안삼의 사, 인견의 사, 선비의 도시에서의 사를 상징하게 된다. 항공사진에서 볼 때 보이는 '사'자 형태 마스는 인터넷에서 풍기읍을 검색할 때 처음 접하는 모습이며 풍기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다. 풍기읍사무소는 풍기읍성을 기억하는 역사의 흔적이다. 풍기읍사무소는 풍기읍성의 성안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이곳의 지명에 풍기읍성에 관한 흔적이 남아있다. 성곽과 성문의 재료와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외부와의 차단이 목적이 아닌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되는 풍기읍성이다. 풍기읍사무소는 광장과 일체화된 친환경 발전소이다.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발전이 사용되었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자칫에 이질적으로 계획되었던 태양광 패널을 광장의 파고라와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하였다. 태양광 패널 배열은 효율성과 시각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남쪽으로 평행하게 배열하고 복속 끝부분을 에너지 생산의 효율을 감안하여 틀어올렸다. 태양광 발전소는 기우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모이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풍기읍성의 중심공간 역할을 한다. 풍기읍사무소는 무수한 힘의 과정의 결과물이다. 풍기읍사무소는 발주처, 사용자, 설계자와의 무수한 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특히 발주처 디자인관리단과의 협력으로 자칫의 외관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여 초기의 계획개념이 배수되지 않으면서 디자인이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계획 단계 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도 협의의 통해 디자인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풍기읍사무소는 기존의 공공사의 역할을 탈피하여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자 하였다. 어디서든 열려있는 민원실, 광민, 전시, 전망 등의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세 개의 데크, 주민들의 열린인 태양광 파고라 등 주민들의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또한 사람들이 만나는 교차로가 풍기를 상징하는 사가 되고, 역사속의 읍성을 기억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여 주민들이 풍기를 기억하고 자유롭게 오가며 활용하고 쉬어갈 수 있는 주민들의 광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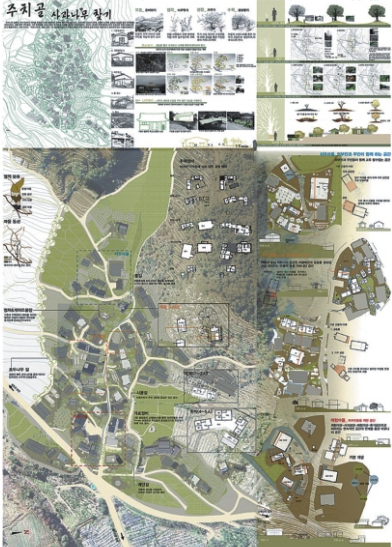
■ 계획건축부문 수상작

대상

주치골 사과나무 찾기

박재엽 | 정옥찬 | 손지원

청주대학교



최우수상

Roof Community

한지수 | 김대천

공주대학교 (주)마디종합건축사사무소



최우수상

있다, 있다 그리고 있다

김용성 | 주슬기 | 염윤신

충북대학교



우리나라 농촌은 과거 6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만든 슬레이트 집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로인해 건강상의 문제, 건물의 노후화, 실용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북 영주 주치골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치골은 사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대리비 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과 농사를 짓기 힘들어졌다. 이에 우리는 '사과나무의 성장 과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마을주민들이 주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로 계획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이끌어

-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도시 ‘군산’
- 군산내항 일대 쌀 창고, 정미소, 은행, 가옥, 무역회사 등을 건축관 전시장 카페로 되살려 내

여러 지역에서 역사적 건축물인 근대문화유산들이 개발이라는 이유로 하나 둘씩 철거돼 사라지거나 방치되는 것과 달리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현재 군산시 장미동과 월명동 일대는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화 사업으로 도심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각종 언론에서도 군산시의 이의 내용들을 연일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어, 이제는 무조건 적인 개발로 철거나 방치가 아닌 ‘재생과 활용’이라는 정책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호 특별기획은 오는 10월 중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며 본지 건축문화사랑이 후원하는 ‘2013 제2회 광주도시재생투어(군산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독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하고자 이의 내용을 게재함을 밝혀둔다.



▲ 전북 군산 장미동과 월명동 근대문화역사거리(근대산업유산벨트화지역과 근대역사경관지역) 안내도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 ▶ 사업목적 : 일제강점기 역사의 현장을 보수·복원하여 기억의 ‘공간’으로 재조명하여 전시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 대상지역 : 군산시 장미동, 월명동 일원
- ▶ 사업면적 : 365,000㎡
- ▶ 주요사업
 1. 근대산업유산벨트화지역 조성(15,000㎡)
 - 근대역사박물관 건립, 군산항역 복원, 폐철도 활용 기차 테마
 - 예술창작공간 조성(조선은행, 일본제18은행, 미즈상사 등)
 2. 근대역사경관지역 조성(350,000㎡)
 - 근대역사 체험공간, 경관로, 탁류길, 자전거도로, 테마거리 등
 - 원도심 지역 근대건축물 정비

▶ 1단계 사업(2009년 ~ 2013년)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건립	‘09~’11	해양물류역사관, 근대생활관 등
근대문화벨트화 조성	‘09~’11	문화공간 및 예술창작공간 조성 등
근대역사경관 조성	‘09~’13	근대역사체험공간 및 경관로 조성
근대문화재 매입 정비	‘08~’11	조선은행, 일본제18은행 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	‘07~’10	퇴역 군장비 16대 전시
마을미술프로젝트	‘10	역사·문화 스토리 미술작품 설치
군산탁류거리	‘11~’12	시간속 도보여행 코스 조성
원도심 자전거 도로 개설	‘11~’12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

▶ 2단계 사업(2014년 ~ 2019년)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군산항역 복원	‘14~’15	근대 내항 쌀수탈사 전시관 조성 등
내항 폐철도 활용 기차 테마	‘14~’15	레일바이크 개설, 열차 3량 전시
근대역사 체험공간(2권역)	‘14~’19	근대역사체험공간 확대
원도심 테마거리	‘14~’15	일본식 가옥 탐방로 조성
원도심지역 근대건축물 정비	‘14~’19	근대건축물 172개동

근대산업유산벨트화지역 조성 사업

근대산업유산벨트화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지역문화 재생공모사업에서 전국1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장미동에 위치한 조선은행, 18은행, 장미공원장 및 장미갤러리 군산근대역사물관, (구)군산세관 등 6개 거점을 중심으로 전시 및 공연, 예술·창작 공간 등 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근대기 식민 지배의 고통을 교훈 삼아 미래 세대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대역사교육의 도시조성사업이다.



▲ 군산시 장미동 내항일원의 주요 근대산업유산

①(구)군산세관본관

- 위치 : 전북 군산시 장미동 49-38
- 특징 : 대한제국(1908년/순종 2년 6월)에 만들어졌으며 당시 전하는 말에 따르면 불란서 사람 혹은 독일 사람이 설계하고 벨기에에서 붉은 벽돌과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건축했다는 설이 있다. 군산세관은 많은 부속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헐리고 본관건물만이 남아 있으며,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의 하나로 현재는 호남관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②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위치 : 전북 군산시 장미동 1-67 / 대지면적 : 8,347㎡ / 건축연면적 : 4,248㎡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1층 - 해양물류역사관(509㎡), 어린이박물관(126㎡), 수장고(113㎡)
2층 - 근대자료규장각실(84㎡)
3층 - 근대생활관(617㎡), 기획전시실(231㎡), 세미나실(73㎡)
- 설립취지 :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역사는 미래가 된다’는 모토로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물류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여 서해 물류유통의 천년, 설게로 뻗어가는 ‘국제 무역항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설립했다.
- 건축디자인 : 1920년대 근대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디자인했으며, 2010년도 공공디자인 부문 우수디자인상 수상, 자연친화적 건축재인 산화동판 사용, 야간 경관조명은 근대의 보석이라는 주제로 근대문화유산을 소유한 군산의 이미지를 상징화했다.



③군산근대미술관(구 일본 18은행 군산지점)

- 위치 : 전북 군산시 장미동 32
- 특징 : 일본 나가사키에 본사를 두고 있던 은행으로 군산에는 1907년에 설립되어 조선에서 일곱번째 지점이 되었으며, 일본으로 미곡을 반출하고 토지를 강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었다. 초기에는 대부업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썬이자로 대출을 주고 이 돈으로 일본인들은 조선인에게 토지를 담보로한 고리대금업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토갈취가 많았다고 한다. 본관 우측에는 2층 조적조의 금고 및 창고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고 좌측으로는 2층의 일식 목조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④장미갤러리, 장미공연장 등

- 위치 : 전북 군산시 장미동 33일원
- 특징 : 일제강점기에는 용도나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위락시설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에 장미동의 지역명칭을 딴 장미갤러리, 장미공연장을 개관했다. 군산의 예술창작은 문학과 신파극이 두드러지는데 문학은 백룡 채만식의 소설 탁류가 있으며, 신파극은 군산좌(구, 군산극장), 회소관(구, 극도극장)에서 주로 공연되었다.



⑤군산근대건축관(조선은행군산지점)

- 위치 : 전북 군산시 장미동 23
- 특징 :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시설로 1923년 건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을 배경으로 한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 등장하기도 한 이 건물은 군산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다. 1909년 대한제국 국책은행으로 설립된 한국은행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한일합방이 되자 총독부에 의해 조선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조선총독부의 직속금융기관 역할을 하기도 했던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23년에 일제 식민지 정책의 총본산이었던 조선은행의 군산지점으로 건립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인질로 잡혀왔던 독일인들에 의하여 설계되었고 중국인에 의하여 시공되었다. 현재는 지난 2008년 보수·복원 과정을 거쳐 군산근대건축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租界)지역으로 개항된 후 군산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1905년 제 1차 축항공사를 시작으로 1921년까지 많은 공사를 통해 연 80만톤에 달하는 수출입화물 하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부잔교는 물 수위에 따라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뜬다리부두라고도 하며 1918년 ~ 1921년, 1933년 준공되었다고 한다.

⑥부잔교(뜬다리부두)

- 위치 : 전북 군산시 장미동
- 특징 : 군산내항은 금강하구와 중부서해안에 자리한 지리적 특징으로 고려대는 진성창이 자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칠읍해창이 운영되던 물류유통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해상교통로의 역할을 염두한 일본은 1899년 군산이 각국 조계(租界)지역으로 개항된 후 군산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1905년 제 1차 축항공사를 시작으로 1921년까지 많은 공사를 통해 연 80만톤에 달하는 수출입화물 하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부잔교는 물 수위에 따라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뜬다리부두라고도 하며 1918년 ~ 1921년, 1933년 준공되었다고 한다.

근대역사경관지역 조성 사업



군산시 월명동 일원 약350,000㎡ 지역으로 히로쓰 가옥(신흥동 일본식가옥), 동국사, 해망굴 등 다양한 근대역사문화자산이 소재하고 있다. 근대역사경관 사업을 통해 근대역사 체험공간, 근대역사경관로, 중정형 소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여 원도심 개항도시 원형을 간직하면서 특화된 도심공간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근대 역사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군산시 월명동 / 신흥동 주변

①고우당(근대역사 체험공간)

- 위치 : 전북 군산시 신흥동 16-6
- 특징 : 옛古벗友집堂 “고우다”의 전라도 사투리 “고우당께”를 표현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곳은 나라를 잃고 서러웠던 시대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만든 공간으로, 일제시대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일본식 가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곳 정원에서는 10월까지 오후 6시부터 60분 동안 7080 통기타 콘서트, 민요, 무용, 판소리 등 상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②(구)히로쓰가옥(신흥동 일본식 가옥)

- 위치 : 전북 군산시 신흥동 58-2
- 특징 : (구)히로쓰가옥이 위치한 신흥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군산 시내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지역으로 포목점을 운영하던 히로쓰 게이샤브로가 지은 주택으로 (구)호남제분의 이용구 사장 명의로 넘어가 오늘날까지 한국제분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영화 장군의아들, 바람의 파이터, 타짜 등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이 주택에서 촬영되었다. 이 건물은 근세 일본 무가의 고급주택인 야키형식의 대규모 목조주택으로 건물 사이에는 일본식 정원이 꾸며져 있다.



③동국사(일본식 사찰)

- 위치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 특징 :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일본식 사찰로써 일제 강점기인 1909년 내전불관화상이 개창하였고 대웅전은 1913년에 창건되었다. 당시는 금강사라 했으나 해방 후 김남국 스님이 인수하여 동국사라 이름 지었다고 하며 동국사는 개항된 후 일본인들이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유입된 그들의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땅에 정착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좋은 근대문화유산이다.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과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9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을 통해 두드러진 가장 큰 효과는 바로 ‘도시 관광활성화’이다. 지난 8월 1일 전북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011년 10월 개관 후 누적 관람객이 4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올해 전반기에 10만 여명이 찾았고 하루 평균 1천3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그 배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이 지역 역사성을 계승하게 했고 소외되었던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한마디로 도시재생의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된 것이다. 향후 2단계 사업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표적 역사도시로써 거듭나는 전라북도 군산시를 기대해 본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 건축_ 3부

≫ 플로팅건축의 전망



문창호 교수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mchangho@kunsan.ac.kr

- 1부 : 플로팅건축의 배경 - 2013년 7월
1) 플로팅건축의 유래, 2) 플로팅건축의 필요성
2부 : 플로팅건축의 국내외 현황 - 2013년 8월
1) 우리나라의 플로팅건축, 2) 유럽지역의 플로팅건축, 3) 미주지역의 플로팅건축
3부 : 플로팅건축의 전망 - 2013년 9월
1) 각종 플로팅건축 제안, 2) 앞으로 플로팅건축의 방향

플로팅건축(부유식 합체 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은 향후 펼쳐질 수해양시대 건축 부문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내에서 플로팅건축 분야 권위자로 잘 알려진 전북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의 원고를 2013년 7월호부터 9월호까지 총 3회에 걸쳐 게재코자 한다.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플로팅건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플로팅건축이 다양한 지역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경제적/제도적 문제가 해결되면 차차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필자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플로팅건축의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 플로팅 묘지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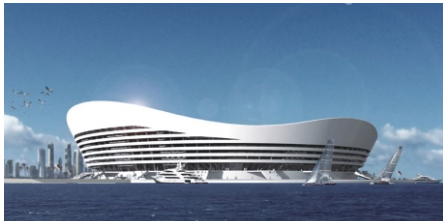
▲ 플로팅 묘지 내부(출처 : <http://www.fastcompany.com/1654972/dead-water-floating-cemetery-hong-kong>)



▲ 플로팅 풀 전경



▲ 플로팅 풀 내부(여름 : 수영장) (출처 : <http://inhabitat.com/floating-pool-could-clean-the-water-in-pragues-vltava-river/>)



▲ 플로팅 스타디움 외관



▲ 플로팅 스타디움 단면(출처 : <http://www.archdaily.com/138162/floating-offshore-stadium-stadiumconcept/>)

1) 각종 플로팅건축 제안

- 플로팅 묘지(Floating cemetery), 홍콩

홍콩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육지에 묘지를 조성할 땅을 찾기가 힘들다. 고층의 납골 건물도 좋은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실 묘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공공 묘지는 대기 순번이 길다. 따라서 후손들은 불교전통에 따라서 선조를 좋은 묘지에 모시고 싶지만 대부분은 화장으로 처리한다. 이 플로팅 묘지는 2010년 홍콩의 한 건축가가 제안한 것으로 바다에 납골 묘지를 만들자는 완전히 새로운 제안이다.

항구 근처에 플로팅 묘지를 조성하면 육지의 묘지에 비하여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 플로팅 묘지가 인공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참배객들에게 훌륭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가 좁은 홍콩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안으로 생각된다.

- 플로팅 풀(Floating pool), 프라하

도넛 모양의 플로팅 풀은 2012년 프라하의 Vltava강에 제안되었다. 오염된 강을 정화하고 시민들에게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2가지 목적이 있다. 이 강은 산업화 이전에는 오염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여름에는 수영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탔던 곳이다.

따라서 이 건물은 바닥에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전처럼 수영하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풀은 동그런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바, 개인실, 탈의실, 휴게실, 사우나 실 및 기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은 보트나 플로팅 보행교를 이용하여 이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1석 2조의 건물로 우리나라 도시의 오염된 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플로팅 스타디움(Floating off-shore stadium)

2010년 독일의 한 건축사무소가 "FIFA 월드컵 2022"를 위하여 제안한 플로팅 스타디움이다. 규모는 65,000석에 260,000㎡이다. 1회성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올림픽이나 월드컵 등)를 위하여 육지에 스타디움을 건설하면 행사 후 낮은 이용도로 인하여 대부분 운영상에서 큰 경제적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 월드컵 이후에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었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자 바다를 통하여 이동이 가능한 플로팅 스타디움이 제안되었다. 사실 세계 대부분의 대도시가 바다를 통하면 연결이 가능하다. 플로팅 스타디움은 국제적인 이동성 확보로 인하여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도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의 수열 이용이 가능하고, 바다-육지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와 넓은 지붕면을 활용한 태양 에너지 이용도 가능하여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용이하다. 21세기의 새로운 스타디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플로팅 호텔(Floating hotel), 두바이

플로팅건축 전문 건축사무소인 네덜란드의 Waterstudio가 설계하고, 관련 플로팅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인 Dutch Dockland가 협동하여 제안한 플로팅 호텔 계획안이다. 두바이 앞 바다에 제안한 호텔로서 32층 높이를 갖는다. 물위에 떠있는 특성을 살려서 매분 1도씩 회전시켜 모든 객실에 동등한 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사람이나 물품의 출입은 호텔을 둘러싸는 플로팅 도로와 플로팅 브리지를 이용하여 해안으로 연결된다. 물론 보트를 이용한 수상에서의 출입도 가능하다. 이 호텔이 물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10m 정도 깊이의 합체(pontoon)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적인 호텔 디자인으로 생각된다.



▲ 플로팅 호텔 외관



▲ 플로팅 호텔 내부
(출처 : www.waterstudio.nl)

- 플로팅 모스크(Floating mosque), 두바이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Waterstudio가 두바이에 제안한 플로팅 모스크이다. 외형은 전통적인 이슬람 사원 형태를 갖고 있으며, 대규모 콘크리트+스티로폴의 합체 위에 건립되어 물위에 떠 있고, 단열성능이 뛰어난 외벽 재료를 사용하고, 바닷물의 수열을 비롯한 다양한 재생에너지도 사용하여 에너지 측면에서 거의 자립할 수 있는 수준(zero energy)의 건축이다.

지붕과 내부 기둥은 투명한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주광을 실내에 끌어들이고, 바닷물을 건물의 바닥, 벽, 지붕 속의 혈관과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끌어올린 후 다시 지붕과 기둥을 통하여 흘려보낸다. 이렇게 수열을 최대한 활용하면 중동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의 냉방부하를 15도 정도 낮출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얻은 전기를 바닷물 펌핑(pumping)에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냉방에 사용하면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올 필요는 거의 없다.



▲ 플로팅 모스크 외관



▲ 플로팅 모스크 내부
(출처 : www.waterstudio.nl)

2) 앞으로 플로팅건축의 방향

요즘의 화두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로팅건축은 물위에 건립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열을 최대한 이용하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풍력과 태양 에너지도 활용하여 제로에너지 건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2011년 유럽 플로팅건축 답사시 만난 Koen Olthuis(Waterstudio의 대표)의 주장 즉, 개별 건축물 보다는 단지를 통한 플로팅 커뮤니티 개발, 이동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하여 구형 플로팅건축의 지역 또는 국제적인 순환(재개발 국가에 제공 방안)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달 미국 동부지역 플로팅홈 주거단지(Sea Village) 답사를 했는데, 비록 파도가 없는 정온수역이라 할지라도 태풍 같은 재난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작년 10월 태풍 샌디(Sandy)에 의하여 특히 통행로의 피해가 많았는데, 기술적인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플로팅건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연재를 마치며... 플로팅건축은 육지의 건축에 비하여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고, 물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플로팅건축은 물위에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상활동을 즐기기 위한 마리나(Marina) 시설이 증가 추세에 있다. 물을 즐기 위한 플로팅건축은 이러한 마리나 시설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물에 친숙하고 수상활동을 즐기기를 원하는 인구가 증가할 때 플로팅건축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한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재를 통하여 플로팅건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플로팅건축 연구단은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4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건축 디자인, 환경, 구조, 시공 등 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플로팅건축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지금까지 3회에 거쳐 연재를 주신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남지역 전통건축 분야의 명맥을 이어가는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장진영 건축사와의 만남

문화재... 보통 ‘문화재’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세월의 흔적을 느끼는 연륜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전남 나주의 장진영 건축사는 전통건축 분야에서 ‘세월의 연륜’ 보다는 ‘경력의 연륜’ 이 묻어나는 신진 건축사로 활발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9월 2일 서재형 편집인과 박종호 편집위원이 장진영 건축사를 만나 나눈 일문일답이다.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관리사무소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설계입문, 학업 등)

대학을 졸업하던 해 우리나라는 IMF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취업의 문도 좁아지고,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고 도 다른 분야로 가는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마침 지금의 (주)삼진 건축 이봉수 건축사님께서 진행하던 순천 송광사 전역에 대한 건축물 실측조사팀에 합류하게 되어 실무의 첫 발을 전통건축 분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학부 때 지루하게만 여겼던 분야였는데... 일년여간 그곳에서 기거하며 한국건축의 류(流)에 대해서 조금씩 몸으로 느끼다보니 어느순간 눈이 떠졌다고 할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길을 걷다 옛건축물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멈춰 여유를 즐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감탄을 하던 나를 보게되는 계기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고 고달픈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보낸 십여년의 시간들 속에서도 방황과 건축에 대한 의구심도 가졌지만 가끔은 그런 여유를 찾을 수 있기에 이제는 직원들과 한 모듬이 되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에 대해...

지금까지 일하며 오늘까지 적립한 철학이 정말 철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받는 국보1호 승례문도 선암사 뒷간(화장실)도 같은 가치의 문화재입니다. 극과 극인 것처럼 보여 지지만 이 두 건축물은 적절한 장소성과 양식을 갖추었으며,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과 예술성으로 전. 후 시기를 전승하는 건축물입니다. 한 켠 한 켠 쌓은 시간이 역사가 되고 그 산물이 문화가 되듯 그 중심에 서있는 건축사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자랑스럽지 못하면 저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에게는 미안한 일이니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할 때가 많죠. 경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야 하고, 건축사 스스로 치열함을 보여주며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작년 파리 여행에서 만난 장누벨의 원시미술관(케브랑리)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고 할까요. 학생 작품처럼 분명하고 편안한 컨셉에서 출발해 명쾌한 디자인으로 잘 풀어냈다고 할까요. 그를 소개한 글을 인용하면 ‘공간적 배치의 정확성, 부분에서 전체로의 융합, 문화적인 연장선까지 생각하며, 상상 속 반응의 놀이로 접근방식을 풀어간다.’ 건축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싶더군요. 아울러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임경희(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 이봉수 건축사(주/삼진 건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문화재업무 특성상 사찰, 향교, 교회 등 종교시설 출입이 많습니다. 문화재업무특성상 사찰, 향교, 교회 등 종교시설 출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건축사들이 만나는 사장님(건축주)이 아닌 전교님, 스님, 신부님을 뵙습니다. 물론 인사법도 다르죠. 바쁘고 정신없는 날에는 향교에 가서 전교님께 일배를 드려야 하는데 스님에게 하듯이 삼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 그래서 가끔 저의 종교에 대해 물으시면 모든 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신진 건축사로서 선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라남도에서 정책적으로 한옥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는 그 설계도를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200여동 되는데 일부는 도면에 정보가 부족하고 전후관계가 맞지 않는 등 한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옥을 처음 접하는 건축사님이시겠지만, 도면은 시공자와 계약의 근거로 건축주의 재산권과 결부되어있습니다. 목수가 아닌 건축사가 설계한 한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전문적으로 문화재를 실측하고 설계하는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시험회 자체적으로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고 연구하는 정책을 수립해줬으면 합니다. 선대의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여 활용하는 나라가 말로 선진국이기에 때문입니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종호 건축사기자
정리 : 박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남/(주)디딤 건축사사무소 장진영 건축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나주 (주)디딤 건축사사무소 대표 장진영 건축사입니다.

2008년에 개업하여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로서 작품활동을 하며, 전통건축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건축사로서 선배 건축사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소 식구들과 함께 맞이한 2013년



▲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 화장실



▲ 무안 봉불사 대웅전



▲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 대가집



▲ 담양 유천리 한옥

2부 / 배제하는 건축

1부 / 건축학과 지망생에게 해 준 말 속의 건축현실 -2013년 8월
2부 / 배제하는 건축 - 2013년 9월

김광현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kkhfile@snu.ac.kr



건축처럼 알기 쉬운 것도 흔치 않다. 사실 잘 못하는 사람, 잘 하는 사람이 다들 엉켜있는 곳이 건축이라는 직업영역이기 때문이다. 학원만 나온 사람이나 술한 경험을 겪은 사람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 동등해지는 건축이고 보면,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일 한 가지. 우리는 건축을 사회에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웬지 개념이 딸리고 생각이 딸린다. 그것만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학생들에게도 건축을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잘 생각해 보라. 대학교수라고 하지만 모두 학생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 않은가? 얼마나 알아듣지 못할 것이 많기에 건축설계, 건축의장 관련 의 믿을만한 교과서 하나 번듯하게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아무진 서양건축사 책 한 권도 저학년에게 권할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네 건축하는 사람들은 웬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알기 어렵고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말을 시민이 잘 알아들을 수 있으랴?



▲ 아폴로 신전의 기단과 기둥(그리스 델피)

원인은 간단하다. 건축이 태생적으로 ‘배제’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건축을 내 인생 그 자체로 여기며 사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발칙한 소리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 건축은 땅을 파고 그 위에 기단을 얹어 땅과 분리를 함으로써 번듯하게 선다. 내외의 공기를 분단하고 빗방울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큰일이다. 건축의 시작은 배제하는 작업이다. 학교에서 5년 내내 매일 하얀 스틸로폼만 보고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이 순백의 무구한 작업처럼 느껴진다. 5년 내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남보다 내가 달라야 하고 예뻐야 하며 튀어야 하고 남에게 이겨야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 어디 이것뿐인가? 설계스튜디오에는 한 명도 아닌 서너 명이 쏘아대는 모진 크리틱을 5년 내내 견디다보면 강해지는 것은 탄탄한 방어 메커니즘뿐이다. 이 모든 것이 ‘배제’의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건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배제하는 방법을 아름답게 가르치고 있다고 실토해야 한다.

그래서 남는 것은 ‘나’다. 건축하는 일은 잘 생각해 보면 ‘나’를 파는 일이다. ‘나’를 팔아야, 내가 서야 하는 직업이다. 그런데도 답도 없는 물음, 곧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서도 “건축은 이래야 한다고” 규정하기를 좋아하는 직업이다. 유명한 건축가가 될수록 이런 말에 능숙하고, 이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이들을 두고 존경의 눈길을 보낸 지 오래다.

‘나’를 강하게 내세우므로 ‘작가’인 건축가를 높이 친다. 건축가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순혈주의의 성골 건축가가 있고 진골 건축가가 있다.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건축가는 육두품 건축사에도 끼지 못한다는 말이다. 특히 이름이 있는 건축가일수록 이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강하고 남을 배제함으로써 자기를 내

세운다. 이런 건축가는 내심 건축교수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일단 건축교수를 앞잡아본다. 그리고 자기들은 건축 연구자와 시공자와 기술사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작가인 건축가가 되려면 무슨 미학이라는 개념을 서너 개는 표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여 숙성되지 못한 이야기 거리를 함부로 유포한다. 남과 다른 나를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라. 그토록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 서울 남산 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이는가? 보이는 것은 2급, 3급 건물뿐이고, 우아하고 빼어난 건축물 못지않게 허름한 가게들과 길거리의 맨홀 뚜껑이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다. 건축가가 없어도 건물을 선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단지 건축을 순혈주의로 생각하는 버릇을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나는 건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건물을 지어오면서 건축과 건축사야말로 참으로 배제의 논리와 행위 속에서 작업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왔다. 그리고 흰색, 기하학, 조닝, 용도지역, 복도, 기능, 추상과 같은 수많은 배제를 기저로 한 근대건축의 사고에 물들어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는 분단된 땅에 집을 짓는 일도 배제하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이에 곁들여서 건축선, 사선제한, 건폐율, 기부체납 등 수많은 사항이 적용된다. 모든 것이 배제의 기저 위에 있는 사항들이다.

건축을 움직이는 것은 작품이 되기 이전에 제도에 먼저 구속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획하고 수주하고 심의 통과하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좋게 평가하도록 도모하는 일 전체는 정치적이다. 일도 내가 하다가 다른 사람이 받게도 해주고, 또 친한 자기 사람들을 추켜주기도 해야 하는 것이 유명한 건축가들이 건축하는 일 중의 하나다. 그렇게 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고 끼리끼리의 그룹과 동아리가 있어야 한다. 이를 견고하게 하려고 ‘정신’을 강조함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이 세 가지. 제도적 구속, 정치적인 활동, 그리고 정신적 치장은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환경에 대하여, 다른 건축가에 대하여, 다른 작품에 대하여 내 것을 구별하고 남의 것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건축의 ‘공공성’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공공성일까? 그렇지만 성행하는 이 말만큼 공공성을 실행하는 방식을 제각기 알고 제각기 자기 방식으로 실천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사적인 건축주에게는 한 마디도 피력하지 못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만 이런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도라면 이것은 반의반도 못되는 건축의 공공성이다.

나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건축의 공공성을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이를 생활과 사회와 문화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려되는 것은 요즘 건축가들이 말하는 공공성은 감성적이며 추론에서 나온 것일 뿐, 계획적인 공공성 구현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참 많이 느낀다. 아니면 주도적인 이슈가 부재한 이 건축계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대안 정도로 공공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건축을 소비하는 행위다.

건축이 공공성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건축이라는 일 자체가 정말로 다양한 배제의 구조를 가진 것임을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사, 건축사라는 직업, 일의 처리방식,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기본적인 자세가 이전부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남과 달라야 하고, 남과 다른 방식으로 수주해야 하는 배제의 운명을 지닌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갑자기 무슨 선언문 하나 읽었다고 건축과 건축사가 저절로 공공성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공공성 운운하기 전에 언제나 반성해야 할 일이다.

많은 것이 상대화되고 있다. 사회는 배제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아무리 건축을 예술이요 예술을 넘는 것이요 하고 말한다 해도, 건축은 그 태생이 나와 다른 것, 안과 다른 것을 배제하는 구조물이며, 건축사와 건축가란 근본이 배제하는 직능임을 알고 있는 것이 건축의 공공성을 말할 때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임백천 씨는 최근 월간지에서 가수는 공인(公人)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인(私人)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건축사는 공인(公人)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인(私人)이라고 말하는 것이 건축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다. 물론 아이러니컬한 말이다.

“건축은 시적이어야 하고, 마음을 울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꼬르뷔제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은민균 교수와의 만남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우석대학교의 건축인테리어학과는 내년 충청북도 진천에 개교하는 진천캠퍼스로 이전하게 된다. 호남권 건축전문지로써 이 지역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를 돌며 인터뷰를 연재하고 있는 현재... 어쩌면 우석대학교는 은민균 교수를 끝으로 더 이상 인터뷰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지난 9월 4일 이전 관계로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한 은민균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진천시장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서 단지계획 및 도시설계를 전공하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꿈을 잠시 가졌었는데,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 연구주제를 꼬르뷔제로 했고 ‘디벨로퍼’의 꿈보다는 교수로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박사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꼬르뷔제를 연구하면서 건축가는 좁은 의미의 건축을 하는 전문인이 아니라 공간을 다루는 전문가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가구에서 도시개발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다루는 건축가(꼬르뷔제처럼) 그리고 교수가 되기를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걸어온 길, 연구업적 또는 관심분야

건축과 교수가 되려면 실무경험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건설회사 2년(1989년 당시 고대에서는 박사과정 입학 시 2년의 실무경험을 요구함) 근무 후, 풀타임으로 고려대 도시설계연구실에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건축사 취득 후(1992년) 개인사무실을 93년부터 98년까지 실무를 수행했으며, 98년부터 99년까지 도시설계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협약해 도시설계업무를 총괄 수행했는데, 상암지구개발공모전 최우수상, 부산정관지구개발공모 최우수상, 잠실지구개발공모 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와서는 주로 정책연구로 관광 및 마을 만들기 등 마스터플랜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증가 및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대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건축과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비전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가는 건축설계만 한다?” 건축가는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을 다루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공간을 기본으로 규모를 키워보면 거리와 마을, 단지, 도시 등의 큰 공간, 규모를 줄어보면 실내공간, 가구, 스트리트 퍼니처 등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이런 업무들이 건축영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가는 고집 있게(?) 건축만 한다?” 요즘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사회와 전문분야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 변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 건축가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건축학도들이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도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학자로서의 철학에 대해

우리에게는 타협이라는 말이 매우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이는 나쁜 방향으로의 선택을 내포할 때 더욱 그러한데, 인간의 삶을 바라봄에 있어서 최대, 최소라는 절대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 ‘맥시멈(maximum)’과 ‘미니멈(minimum)’입니다. 양자에서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 건축가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즉 ‘최적(optimum)’이 무엇인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생각하며 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인 또는 제자들에게 당부 한마디...

좋은 건축은 큰 규모,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것이 아님을 마음으로 인식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건축은 시적이어야 하고, 마음을 울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꼬르뷔제의 말처럼 우리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도록 합시다. 건축은 인간학이라고도 하는 데 “왜 그럴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작업에 임하여 나도 행복하고 이용자도 만족하고 건축주도 좋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윤미순 건축사기자
취재·정리 : 박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북/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은민균 교수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공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공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수상실적

상암지구 개발기본구상 현상공모 최우수상 1997년
잠실지구 개발기본구상 현상공모 우수상 1998년
부산 정관지구 개발기본구상 현상공모 최우수상 1998년

▣주요경력사항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실 소장
민 건축사사무소 소장
혁신건설주식회사 집합주거단지계획담당

▣소지자격 / 건축사 1992년

▣주요수행 프로젝트(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상암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
부산 정관지구개발 기본계획 등 다수

▣주요수행 프로젝트(주거단지 계획)

하남시 1지구, 제 2지구 주택지 조성사업계획
경기도 이천시 청우현대 아파트 주거단지계획 등 다수

▣주요수행 프로젝트(문화 및 집회시설)

전주시 전통문화특구 마스터플랜
(문화관련 4개 시설 배치계획)
전주한방문화센터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등 다수

▣기타시설

우석대학교 기술사 건립기본계획
우석대학교 한방재활센터 건축기본계획 등 다수

도봉구 도시설계



프로젝트개요
1. 쌍문지구 중심 도시설계 / 위치 : 창동, 쌍문동 88일대, 면적 : 81,570㎡
2. 쌍문생활권 중심 도시설계 / 위치 : 쌍문동 589 일대, 면적 : 57,440㎡
3. 도봉생활권 중심 도시설계 / 위치 : 도봉동 600 일대, 면적 : 33,620㎡

Living Church 건축기본계획



프로젝트개요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58-7(우석대 정문 앞)
대지면적 : 1,507㎡ / 건축면적 : 579.98㎡ / 연면적 : 1,094㎡
계획의 주안점 : 대학생 등 청년층의 교회 아이덴티티 구현
콘서트 등의 공연공간의 확보, 열려 있는 공간, 문화공간으로서의 교회

상암지구택지개발 현상공모 최우수상



프로젝트개요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일원 / 면적 : 1,606,737㎡(485,000평)
추진일정 : 97.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
97. 9 현상공모 당선 / 98. 6 택지개발계획승인 2002. 아파트 건립공사 착수

공학인증, 그것이 알고 싶다.



공학인증 덕분에 학교가 분주하다. 평가 인증단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고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많다. 그렇다면 공학인증은 도대체 왜 필요하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공학인증제(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란 인증된 프로그램으로 공부한 졸업생이 공학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산업체를 포함한 공학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각 공과대학에 대해 인증을 함으로써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을 배출할 목적으로 군산대, 홍익대, 연세대, 부산대 등 많은 학교들이 시행중이다.

공학인증의 최고의 장점인 ‘서류면접 우대’조건은 삼성부터 NHN, 현대중공업까지 총 46개의 기업에서 적용된다. 또,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국가 총 14개국에서 각 국가간의 상호 동등성 인정이나 기술사 등록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대기업 취업을 원하거나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장점뿐일 것 같은 이 제도에도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공학인증제도의 뒤편, 단점은 무엇일까.

공학인증제도도 인증절차 중 하나로 1학년 1학기부터 짜여진대로 수업을 들어야한다. 기초과목으로 MSC(Mathematics, Science, Computer)과목을 이수해야해서 수학 I, 수학 II, 공업수학,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실험, C언어 등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공학인증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1학년은 그저 학교에서 시간표를 직접 짜준다는 꽤 솔깃한 얘기로 충분히 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획일화된 과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1학년 때부터 짜여진대로 수강신청도 하지 않고 편하게 학교를 다닌다. 그것은 진정 편한 것일까 아니면 대학교에 와서 또 겪게 되는 고등학교의 지긋지긋한 수업방식인 것일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학년 1학기 초부터 반복적인 공학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또,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지라도 그 학생에게도 충분한 설명이나 다른 방식의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진로를 원하는 학생에게도 다른 부류라고 따로 분류하지 않고 배려해야한다. 이렇게 점점 공학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마친 학생들에게도 또, 학생들이 우리학교에서 배워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원하는 교수님들에게도 나아가 진정한 공학기술인력을 원하는 사회에도 지금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Kiosk를 만든다.



2012년 8월. 이때 나는 선배랑 같이 흥대를 갔다. 거기에선 조그마한 1평도 안되는 소형물 같은 집이 하나가 있었다. 나중에 선배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Kiosk’ 이동식 주거 였다. 이때부터 나는 이것에 너무 매력을 느껴 자료를 찾고 보는데 취미를 갖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흥대 키오스크를 본지 1년이 되었던 날 키오스크를 만들어보기 위하여 원목과 MDF의 가격을 후배를 시켜 알아보게 했다. 원목으로 할 때 가격은 총 20만원, MDF의 가격은 8만원이었다. 학생의 신분엔 이 가격이 가장 적당하다 싶어 MDF를 주문했다.

날씨도 문제 중 하나였다. ‘비가 오는 날은 습기가 많아서 나무가 물을 먹어 못이 미끄러 질수 있다. 그러니 맑은 날에 제작을 하자.’ 라는 말이 나와서 결국 8월 28일부터 작업을 시작 했다. MDF의 기본 규격은 1220x2440사이즈 그것을 원 피로 작업을 시작하였고 높이는 1800~2000 사이즈로 키오스크 규격을 정하고 실행했다.

다 만든 지금 사람들이 신기해 들어가 보고 만져 볼 때 보람 있음을 느끼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것을 생각한다. 처음 만들었던 것이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찢고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말을 한다. 이것을 만듬으로써 공간이 얼마나 표현 하기가 힘들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여행 (旅行)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갈까?

여행(旅行)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로 표기가 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여행이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실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다.

여행 중에는 많은 종류의 여행이 있다. 국토횡단, 배낭여행, 자전거여행, 시원한 계곡을 찾아 떠나는 드라이브, 맛 집을 탐방하는 여행, 등산을 하는 여행, 자기 나름의 자기 방식으로 떠나는 자유여행, 계획이 있는 여행, 계획이 없는 여행, 모든 여행은 그 여행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다.

계획이 없는 여행은 계획이 없는 대로 의 충동적으로 하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겠고, 계획이 있는 여행 역시 계획이 있는 만큼 순탄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반면 계획을 잘못 수립한다면, 계획하여 경로와 프로그램은 확실하겠지만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시간 계획에서 무너져버린다면 약간의 힘들 수 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힘든 여행은 힘든 만큼의 매력이 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힘들던 정신적으로 힘들던 힘든 만큼의 고통을 감내하고 진행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그만큼의 보람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분명 힘들 것이다. 내색하여 동료와 고통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내색하지 않고 혼자 견디며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얻었을 때의 느낌은 분명 다를 것 같다.

사전적인 여행의 의미를 보태어 생각해보자.

다른 고장에서의 새소리, 시냇물소리, 그 고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 처음 가본 타지에서 자연의 새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나를 반기는 환영가 같이 들리지는 않는가? 우리는 인간이다. 생각을 하며 감정을 느낀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않을까? 자신의 한계를 느껴보면 좋겠다.

2013년

군산 근대역사문화거리 답사

광주 도시재생투어

● 목적

— 광주 도시재생 과제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 광주 도시재생의 발전과 지역건축문화 발전 도모

● 일시 : 2013년 10월 26일 (토) 오전 8:00 ~ 18:00

● 장소 : 전북 군산 장미동, 월명동 지역 근대 역사문화거리 투어

구)군산세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군산근대미술관, 군산근대건축관, 고우당(근대역사 체험공간),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등

● 모집대상 :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및 일반시민

● 모집인원 : 120명 이내-선착순

● 참 가 비 : 학생 10,000원/1인, 일반 15,000원/1인 (중식 포함)-(환불 불가)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55-107-015592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입금시 : 성명기재)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기간 : 2013. 9. 10 (화) 09:00 ~ 10. 16 (수) 18:00

— 접수 : 전화(062-521-0025~6) 메일 접수(광주건축사회 대표메일 : gjkira@empal.com)

1구)군산세관박물관

2구)군산근대역사박물관

3구)군산근대미술관

4구)장미갤러리, 장미공방장 등

5구)군산근대건축관

6구)고우당(근대역사 체험공간)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후원 : 건축문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거시기 머시기’의 개막

— 지난 9월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서 개막식 갖고 59일간의 축제 돌입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이 지난 9월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이영혜 디자인총감독을 비롯해 국내외 미술계 관

계자, 외교관,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마련된 개막 행사는 1부 음식나눔 행사, 2부 식전 행사(개막 오프닝, 축하공연), 3부 공식행사, 4부 개관식으로 구성됐으며 ‘거시기, 머시기’가 담고 있는 상징성, 소통과 관계의 철학이 최첨단 공연과 어우러지면서 관람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선사했다.

한편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거시기, 머시기(Anything, Something)’를 주제로 오는 11월 3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재미술관 등에서 열리며, 주제전·본전시·특별전1·특별전2·워크숍 등 5개의 섹션으로 구성해 산업과 예술의 조화로운 만남을 보여준다.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가을학기 개강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주관으로 오는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최되는 광주지역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가을학기’가 초·중·고등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된다. 향후 진행되는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날 짜	초 등	중 등	고 등
1강	9/14	사물과 생활	생활하는 공간을 사물로 읽어보기	우리 지역의 지역지도를 그리자
2강	9/28	학교 오는 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장소와 변하지 않는 장소	경관으로 읽는 내 마을의 한 장소-걷고 싶은 거리
3강	10/12	나에게 특별한 장소	좋은 건축물 때문에 내 생활이 변했다	집과 동네, 우리 동네의 보물-건축문화유산
4강	10/19	나무로 만든 집, 벽돌로 만든 집	건고 뛰고 타고 달리는 우리 동네를 만들려면?	오래 건물은 고쳐 쓰면 더욱 친숙해진다
5강	10/26	건축물이 바꾸는 나의 생활	시청, 군청, 구청을 지역 주민의 눈으로 다시보기	우리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작은 문화시설
6강	11/2	동물의 집, 사람의 집	우리 학교는 어떤 땅에 놓여 있나?	마을 안에 방치된 공간을 주민의 공간으로 바꾸자
7강	11/9	우리 동네의 사물	우리 지역 공공건축물에 동네 사람이 머물 곳을 제안하자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8강	11/23	교실과 운동장	여러 사람에게 맞는 좋은 벤치를 찾자	지역과 생태
9강	12/7	우리 동네 사람들이 즐겨 머무는 곳	우리 지역의 지역지도를 그리자	글로벌한 시대에 맞는 지역 건축을 상상하기
10강	12/21	건축가와 생활 속의 건축	건축가와 생활 속의 건축	건축가와 생활 속의 건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지난 9월 7일 전국 13곳서 시행

— 호남권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전국 총 5,287명 응시

지난 9월 7일 호남권을 비롯하여 전국 5개 권역에서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실시됐다. 호남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졌으며 서울은 9개 시험장(성수중, 성수공고, 광진중, 광남중, 잠실고, 명일중, 오금중, 오주중, 풍납중), 기타 지방은 부산전자공고, 대구서부공고, 대전문정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올해 시험 응시자는 총 5287명으로 지난해(3985명)보다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자격제도가 오는 2020년부터 실무수련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의식한 응시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일이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의식 교수 / 조용준 교수 정년퇴임

— 지난 8월 23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김의식 교수 / 8월 30일 라마다프라자호텔서 조용준 교수



▲ 김의식 교수



▲ 조용준 교수

광주 지역 건축계의 지주목이었던 두 대학 교수가 정년을 맞이했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의식 교수와 조용준 교수가 각각 8월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과 30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각계인사 및 제자들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김의식 교수는 1972년 조선대학교 공학학사와 1982년 동대학 공학석사, 2003년 원광대학교 공학박사를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연구실적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수익모델의 개발 연구, 학교 시설 건립에 있어 CM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 건축시공 및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다.

조용준 교수는 1974년 조선대학교 공학사와, 1981년 동대학 공학석사, 청주대학교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연구실적으로는 신문광고에 나타난 아파트 계획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와 지방 소도시 아파트의 특성 및 경관 인식에 관한 연구, 지방중소도시 도심지역의 거주환경과 거주의식에 관한 연구 등 도시설계, 도시주거학 분야의 권위자이다.

한편 조용준 교수는 퇴임식에 앞서 지난 8월 28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도시를 위한 도시디자인의 책무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년퇴임 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전북/전북대 건축공학과, 광주/전남대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개최

—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호남지역 4~5년제 대학 대부분 10월과 11월 중 졸업작품전 진행



호남지역 대학교 건축 전공 학생들 대부분이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졸업작품전 개최 및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졸업작품전을 개최한 곳은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이다.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교내 신축박물관 1층에서 진행했으며, 전남대학교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개최했다.

다음은 호남지역 주요 4년~5년제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작품전 일정이다.

지역	대학 · 학과명	일시	장소
광주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09. 25 (수) ~ 09. 27 (목)	공대1호관 9층/11층
전남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10. 09 (수) ~ 10. 11 (목)	중앙도서관 5층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10. 22 (화) ~ 10. 25 (금)	플라자60 1층 대강당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0. 31 (목) ~ 11. 02 (토)	70주년 기념관 1층 전시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학과	11. 06 (수) ~ 11. 08 (금)	2공학 실습관 전시실
전북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10. 10 (목) ~ 10. 12 (토)	아카데미홀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0. 14 (월) ~ 10. 16 (수)	송상기념관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10. 15 (화) ~ 10. 18 (금)	전북도청

※ 호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는 미정

남원시 건축사는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조성하여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지역 건축사회 회장 한병진 외 회원 일동

김 동 범 / 동방 건축사사무소
김 수 진 / (주)신한종합 건축사사무소
김 정 태 / 김정태 건축사사무소
노 현 희 / 아키엔 건축사사무소
설 재 희 / 광남 건축사사무소

신 봉 현 / 동방 건축사사무소
양 태 화 / 어울림 건축사사무소
이 병 영 / 광남 건축사사무소
장 근 홍 / 샬롬 건축사사무소
한 병 진 / 한진 건축사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강운태 광주시장과 면담

－지난 8월 21일 광주시장 접견실서 만남 가져, 건축 관련 현안 사항 건의 및 논의해

광주지역 건축계를 대표하는 단체 회장들이 지난 8월 21일 광주시장 접견실에서 강운태 시장(이하 강 시장)과 만남을 갖고 광주시 건축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이하 안 회장)을 비롯해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조용준 회장, 광주전남건축학회 김지민 회장, 광주건축가회 정광민 회장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건축주택과 강백룡 과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광주시 건축 관련 각종 위원회에 건축사 참여 확대와 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에 대해 개선 건의하였는데, 강 시장은 건축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에 확대 조치토록 지시(건축, 도시계획, 경관심의 위원회 등)했으며, 건축설계용역 발주제도에 대해서도 지역건설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건축사와 공동 지분 참여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또한 안 회장은 턴키발주방식은 지양하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건축설계경기 활성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2013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이 상정되는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의원 및 건축사회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제 21조 제1항), ▶건축사법에 따른 갱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만료일로부터 갱신등록을 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정지(제11조 2), ▶총회 및 이사회 성립 및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은 부결 처리(제16조, 제 27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 6월로 변경하여 전·후반기로 회장 임기와 같이 하고자 함(제30조) 등 이다.

광주건축사회, 회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 이용 협약체결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협약, 회원 및 가족 모두 서비스 이용 가능

광주건축사회는 건축사 회원 및 회원가족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적용대상은 회원 및 회원 가족 중 기본종합검진 이상 신청자이며 내용은 종합검진비용 업무협약수가 적용이다. 상세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검진 프로그램(2013년도 의료보험수가 기준)

구분		기본종합	기본플러스	정밀종합	정밀플러스
남성	협회수가	28만원대	45만원대	75만원대	138만원대
	우대수가	22만원대	36만원대	60만원대	111만원대
여성	협회수가	30만원대	52만원대	91만원대	153만원대
	우대수가	26만원대	41만원대	73만원대	122만원대

프로그램	검사항목
기본종합검진	기초, 소변, 대변, 혈액질량, 간기능,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검사, 심혈관계, B/C형간염, 갑상선기능, 종양표지자, 위장, 상복부초음파, 동맥경화, 흉부X-선, 자궁암, 유방촬영 등 성인 남녀 필수 85여 항목
기본플러스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CT촬영(두부,요추,경추,흉부,심장관상석회)+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종양표지자(CA-125), 비타민검사 등 90여 항목
정밀종합검진	기본플러스종합검진+대장내시경, 호흡기능, A형간염, 뇌심혈관, 골밀도, 인유두종바이러스, 경동맥초음파, 유방초음파 등 101여 항목
정밀플러스 종합검진	정밀종합검진+MRI, 전립선초음파, 액상자궁세도검사, 심혈관계(NT pro BNP), 동맥경화성 정밀검사, CEA, Cyfra21-1, Ferritin 등 116여 항목
기 타 (건강관리협회가 적용)	예비부검진, 채용건강진단, 공단건강검진, 학생건강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A형 간염, B형 간염, 독감예방접종

※ 자세한 검사항목은 홈페이지(<http://gwangju.kahp.or.kr>) 참고

※ 예약시 광주시건축사회 회원 및 가족임을 명시 / 단일종목은 종합검진과 병행시에만 우대 적용

2013년 광주 건축공모전 개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참가 접수

－공모 주제 내용은 광주 상징거리로서의 금남로 환경개선 계획

1. 공모전 주제 : 역사의 길 금남로, 광주의 상징가로 금남로, 아시아 문화전당의 앞마당 문화의 길 금남로, 사람과 인권이 주인인 길 친환경 가로 금남로
2.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금남로 아시아 문화전당 광장부터 금남로 공원 사거리까지
3. 참가자격 : 전국의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
4. 신청서교부 및 접수(등록비 없음)

－일시 : 2013년 9월 23일 (월) 오전 10:00 ~ 9월 27일 (금) 오후 6:00

－방법 : 광주광역시건축사회(<http://gjkira.kira.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e-mail(gjkira@empal.com)로 접수

5. 작품 접수 : 2013년 11월 06일 (수) 오전 10:00 ~ 11월 07일 (목) 오후 6:00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홈페이지 참조(<http://gjkira.kira.or.kr>)

6. 시상 : 대상(1점)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특선(5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佳作(10점) : 상장 및 기념품, 입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7. 우편접수처 :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광주역 근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0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개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주제로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골목길)을 주제로 “제10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자격은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자이며 작품접수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품작품

- 작품내용 : 아름다운 도시 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골목길)
- 응모자격 :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자

▶작품접수

- 일 시 : 2013. 10. 21 (월) ~ 10. 31 (목) PM 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품규격 : 12″×16″ 사이즈 사진 (규격 엄수)
- 제출서류 : 필름 원판 또는 2MB 이상 JPG 원본파일과 참가신청서 제출
- 등 록 비 : 없음 (1인 2작품 이내)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062)521-0025~6

(우)500-876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입상작 발표

- 2013. 11. 8 (금)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게재

▶시 상

- 대 상(1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수상(4점)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장 려 상(10점)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입 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제10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도시경관, 내가 살고 싶은 집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작품접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도시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제10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고학년 4~6학년), 중학교 학생이며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응모

- 응모는 1인당 1작품에 한하며, 별도의 도화지 배부는 없음.
- 작품규격 : 켄트지 4절지(크기 38cm×53cm), 초등학교 저학년은 8절지도 가능
- 참가비 없고 참가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 접속하여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792번에서 다운 받아 이름, 학교명, 학년/반/번호, 작품명, 작품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접수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우)500-876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062-521-0025~6)

☞우편제출의 경우 10월 11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번지)

▶수상자 발표 및 시상내역

- 수상작 발표 : 2013. 10. 18 (금) <http://gjkira.kira.or.kr>를 통하여 발표
- 시상식 : 2013. 11. 23 (토) (개별통지)

○전 시 : 2013. 11. 21 (목) ~ 11. 24 (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시 상

①초·중등부 : 최고상(총 3점 /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및 30만원 상당 상품) 등 다수

②유치부 : 최우수상(2점 / 10만원 상당 상품) 등 다수

2013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관, 9월 27일까지 등록 / 총상금 1,200여 만원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시대정신과 도시철학이 깃든 미래지향적인 건축 및 도시 재생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이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아이디어 공모분야

－현지개량방식의 창조마을, 희망만들기 사업,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사업, 낙후된 구 도심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을 방안, 학교, 공장 등 이 전적지 및 유휴지 활용방안,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접목사업 등 다수

2. 시상

－대상(1점)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특선(5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佳作(10점) : 상장 및 기념품, 입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3. 등록 : 2013년 6월 12일부터 9월 27일

4. 작품접수 :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5. 작품제출 규정 : A4 1매

6. 작품접수처 : (우)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7. 문 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el. 062-521-0025~26

E-mail : gjkira@empal.com

농촌생활의 즐거움

귀농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문화가 되어가면서 어느 자리에서든 심심찮게 농촌이야기를 듣게 된다. 마침하는 일이 농업인을 만나는 일이다보니 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예전에는 농촌 이야기를 하면 남의 이야기거리니 하는 분위기여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 흥이 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농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 예전에는 여성들이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서 남자들이 나이들어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아내 때문에 못간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귀농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도 새삼스러운 현상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얼마 전 귀농한지 15년이 된 40대 초반의 부부를 순창에서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귀농할 당시만 해도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대학 나와 고향으로 돌아오면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한다. 고향에서 만났던 농민들은 다섯 명 중 세 명이 귀농인일 정도로 젊은 농부들이 많았다. 진안에서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부부도 고향 부모님 곁으로 귀향한 경우였는데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를 원했으며 현재도 만족감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4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교육이나 문화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아내는 아이들 학교일이나 농사일에 모두 신이 나 보였다. 조금씩 토지를 늘려가는 재미와 해마다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올리는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환경과 먹거리를 얻으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소중하다며 농촌의 장점을 역설하는 부부의 모습이 남다르게 느껴졌다.

선부르게 시작하면 오히려 농촌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경험도 많아 도시로 역귀향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어

디나 사람 사는 곳에 정착하는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다. 나무하나 새소리 하나도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들으면 그 어디나 살기 좋은 곳일테니, 힘들다 힘들다 탄식하는 농촌도 마음열고 노력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좋은 안식처가 아니겠는가. 싱글벙글 웃으며 농촌이 좋 다던 젊은 부부의 얼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떠나지 않는걸 보면 나 역시 농촌생활의 즐거움을 조금은 알게 된 듯싶다.



내가읽은책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

건축답사는 무료하고 딱딱하구나? 이 책은 환기미술관, 미당고택, 박수근미술관, 명성황후생가, 김옥길기념관, 이상고택, 의재미술관 등을 답사하면서 한 시대를 품이었던 인물에 대해 탐구하면서, 건축답사지에 걸맞는 고답적 시(월산대군, 김남주, 김수영, 유치환, 황동규, 정호승, 김초혜 등)도 곁들여 건축여행길이 때로는 낭만과 서정으로 넘친다.

폭염이 계속되었던 올해 여름의 최고 휴양지는 산과 바다가 아닌 시원한 에어컨이 존재하는 서점으로의 피서가 아니었던가 싶다. 아들 녀석과 서점 나들이에 나선 어느 날, 책들이 즐비하게 놓여있는 예술 분야코너에서 책 한권이 눈에 들어왔다. ‘딸과 함께’라는 문구가 ‘건축 여행’이라는 단어가 딸을 둔 아빠로서 끌림이 있었던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이라는 이용재님의 책이 그것이다. 2007년에 출간하여 올 8월 개정판이 나왔다. 딸과 함께한 건축 답사를 통해 나라의 역사와 건축물에 이야기, 풀어쓴 건축용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자성어, 사람과의 관계 등을 딸과 대화하듯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으며 곁들여지는 사진과 각주를 곁들여 좀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았다.

1장 건축, 근현대사를 몸에 새기다.

1866년 병인양요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을 죽은 넋들의 안식처로 승화시킨 절두산순교성지를 시작으로 서울외국인교회, 위커힐 힐탑바, 국회의사당, 자유센터, 대한성공회 성가수녀원, 구별기에영사관, 국립극장, 능선과 어울리는 곡선을 주제로한 국립현대미술

저자: 이용재 / 출판사: 멘토프레스

책소개: 건축학자 아빠와 함께 떠나는 다양한 건축이야기!

관까지 그는 시대적 역사를 배경으로 건물이 건축되어지는 이야기를 눈앞에 펼쳐 놓은 듯 흥미롭게 딸과 대화하며 풀어 놓았다.

2장 시대인물, 건축으로 남다.

믹 피어스라는 건축가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지을 쇼퍼센터 설계를 의뢰받고 3,40도를 웃도는 아프리카에서 에어컨 없이도 내부 기온을 25도로 유지하는 건축물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흰개미의 지혜를 응용한 겁니다. 흰개미는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랐다가 밤이면 5도로 뚝 떨어지는 자연환경에서도 개미집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미집의 통풍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땅속에서 올라오는 시원하고 습한 공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건축물에 적용한 거지요.”

이렇듯 건축에 깃든 원리이야기를 시작으로 비운의 국모 명성황후 생가, 박수근마을, 미당고택, 김옥길기념관, 이상의 생가가 소개 되었으며, 광주 무등산 중심사계곡에 자리한 ‘의재미술관’을 소개하는 부분은 친근한 우리집을 소개하듯 미소를 머금은 뿌듯함을 느꼈다. 주말 무등산을 오를 예정이 있다면 꼭 한번 들러 책속의 향기를 다시금 느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여겨진다.

3장 건축, 아트와 실용주의의 유쾌한 만남.

담쟁이 넝쿨이 온 건물을 휘감고 있는 경동교회는 동대문에서 동대입구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다. 건물이 오래 되어 보이는 교회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가 1945년에 지어진 곳을 1980년에 재건축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동대문 갈

이정현

광주동부교육청

일 있으면 다시 한번 가서 유심히 살펴야겠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참 좋겠다 라는 존슨런 생각을 갖게 했던 서울대학교미술관, 독일의 설치미술작가인 허먼 마이어 노이슈타트의 <리볼버>, 삼성미술관, 아주미술관, 동덕여자대학교학생관, 파주출판도시 안의 꿈동산이라 하는 탄탄스토리하우스는 책속에서 보는 건축물이긴 하지만 멋지다, 예술이다, 직접보고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스며들게 한다.

4장 건축 공간, 교양과 휴식의 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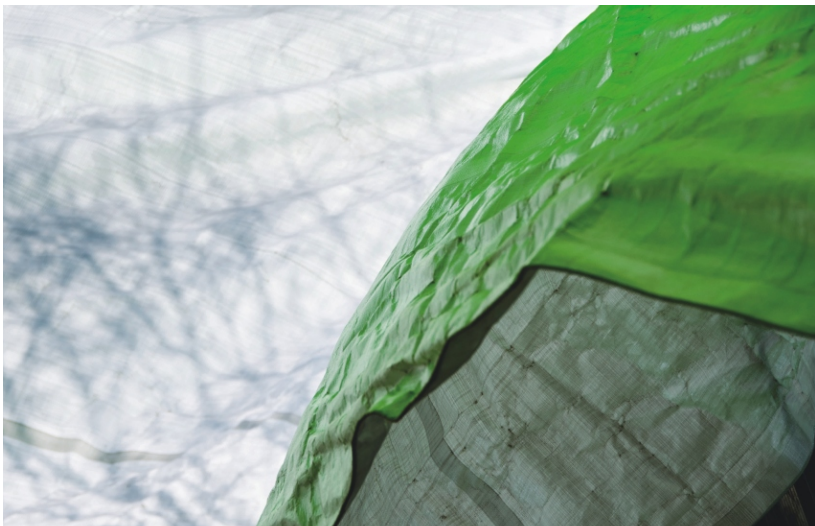
강하미술관, 살아 꿈틀거리는 한 마리 공룡을 품고 있던 해남 공룡화석지 보호각, 암사동선사주거지, 국립중앙박물관, 분원백자관, 정림사지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기당미술관이 소개되는데 건축의 궁극적 목적은 휴식의 장이 되어지며 역사와 이야기가 깃들어서 교양을 이룸이 아닌가 싶다.

초등학생인 아들녀석의 역사, 사회공부를 위해서 주말 혹은 방학이 되면 역사탐방에 관심갖고 코스를 짜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그 지역의 문화해설사에게 의지했던 미숙한 아빠였었다.

이용재님의 책속에 담겨있던 많은 각주와 사진들을 보며 내가 직접 공부하고 아들에게 대화하듯 이야기 해주었다면 세련된 아빠로 기억에 남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단언컨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건축역사탐방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빠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분명 사랑스런 아빠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한다.

건축사 Photo



어느날

바람이 불시 불던 어느날, 바람에 운명을 맡겨버린채 흔들리던 그림자... 무성했던 낙엽은 앙상한 가지만 남기운다.

정태호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광주)

현장의 눈



점점... “광주폴리II-혁명의 교차로”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 교통섬에 설치되고 있는 ‘광주폴리II-혁명의 교차로’ 이와 함께 광주천변, 광주공원, 지하철 객차 등에 설치되고 있는 작가(건축사 등)들의 8개 폴리가 오는 9월 중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선보여진다. 기본취지에 따라 오늘날 공공공간의 형성과 잠재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인지... 기대해 보자.

글 · 사진 : 광승국 전담기자



영무예다음

기다림은 끝났다!

나주가 기다려온 품격 높은 생활, 드디어 영무예다음에서 시작합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영무예다음



광주·전남혁신도시 B-12블록 75m²/84m²A,B | 총 622세대

문의
062)

368-3900



|주|영무건설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저희 동일교역에서는 고밀도 목재패널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LW PANEL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도, 명도, 해상도 등 표면의 색감이 고급스럽고
 편칭메탈의 문제점인 오염과 평탄성 저하, 변색 등 성능 저하가 거의없으며, 디자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주며, 항상 새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한의 환경과 오염에도 변색과 변질없는 내구성과 탁월한 유지 보수성을 지녔고 정교한 평탄성과 디자인성, 마감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LW는 해외 및 국내 경쟁 사들의 롤모델이며 로망인 제품입니다. 수 많은 경쟁 제품들이 현재도 실험적으로 출시하지만, 탈색과 변질,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탱스ARUA PANEL(내부심지에 알루미늄층이 들어간 제품으로 모방과 복제가 불가능한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품질을 견줄 만한 제품이.. 아쉽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입품 조차 이태리, 미국, 한국, 대만, 중국 제품들.. 모두를 비교하여도 2012년 현재까지 젠탱스ARUA의 독보적 품질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패널 겉모양은 똑같거나 더 화려한 제품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시공을 할경우에 따른 문제점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동일교역은 고밀도 목재패널이 아닌 알루미늄심지"가 압축된 젠탱스ARUA PANEL 제품입니다.

고밀도 목재패널 하자사진자료(실제사진입니다)

건물 동일부위 1년후의 실제 변색 대비도



주력제품 : FBD PANEL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시공사례사진



시공사례사진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